

《內經》을 中心으로 한 體型의 肥瘦에 對한 考察

慶熙大學校 全 泰江·洪 元植

A study on the type of Bi(肥) and Su(瘦) of Body
in 'Yellow Emperor's Nei-Ching'

Chun Tae Kang, Hong Won Sik

After studying on the type of Bi(肥) and Su(瘦) of Body in 'Yellow Emperor's Nei-Ching', I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s:

1. The specific character of bi(肥) and su(瘦) were explained in table 1.
2. The specific character of gi(脂), ko(膏) and youk(肉) were explained in table 2.
3. Observing the type of bi(肥) and su(瘦) by the view of YinYang(陰陽), bi(肥) belongs to Yin(陰) and su(瘦) belongs to Yang(陽). Also the each of bi(肥) and su(瘦) could be observed by the view of YinYang(陰陽). The type of su(瘦) easily becomes to yanghea(陽虛) because chi(氣) easily becomes to exhaust also easily becomes to yinhea(陰虛) because blood(血) easily becomes to exhaust. So the outer of body is cold, the inner of body is hot. The type of bi(肥) easily causes YinYang(陰陽) to exceed because blood(血) easily becomes to black and turbid(血黑以濁), chi(氣) easily becomes to rough and slow(氣澁以遲). So the outer of body is hot, the inner of body is cold.
4. Observing the type of bi(肥) and su(瘦) by the view of viscera, in view of upper and lower(上下觀點) su(瘦) is yang(陽) so heart and lung belongs to su(瘦) bi(肥) is yin(陰) so liver and kidney belongs to bi(肥). in view of inner and outer(內外觀點) su(瘦) is inner(內) so heart and liver belongs to su(瘦) bi(肥) is outer(外) so lung and kidney belongs to bi(肥).
5. Observing the type of bi(肥) and su(瘦) by the view of body constitution(體質), partially body constitution was divided into gi(脂), ko(膏) and youk(肉), entirely there was OhtaerinLon(五態人論) and four constitutional medicine(四象醫學) I think that taeyangin(太陽人) and soyangin(少陽人) belong to su(瘦), taeyinin(太陰人) and soyinin(少陰人) belong to bi(肥).

I. 緒論

韓醫學은 古來로부터 유구한 歷史를 내려오면서 人間을 小宇宙로 認識하고, 많은 疾病에 시달리는 人間을 治療하고자 努力하면서 發展을 거듭해왔다. 그동안 많은 生理 病理的 發達을 해오면서 地域과 風土에 따라 治療法이 다르고, 人體가 環境의 變化 因子에 각각 다르게 反應함을 알고 부터 體質을 重視하였다.

본시 人間은 小宇宙이므로 天地의 氣를 받아서 化生되는데 그天的 形體는 乾에서 생기고, 그乾에는 太易, 太初, 太始, 太素가 있으니, 이 四要素를 거쳐서 太極이 된다. 人間은 形氣가 있어야 病이 생기는 법이니, 人의 生은 太易에서 시작되나 病은 太素에서 시작된다¹⁾. 또 天地가 비록 크다하나 形이 있어야 구실을 하니,²⁾ 人生은 形을 基本으로 삶을 영유한다고 볼 수 있다.

內經을 中心으로 한 體型의 肥瘦에 對한 考察

그런데 形이 個個別로 다르니, 그에 대한 生理도 偏差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病에 대한 治療도 다름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本人은 東洋醫學 書籍중 最古의 것이며³⁾ 東洋醫學의 基本理論을 처음으로 集大成한⁴⁾ 《黃帝內經》을 中心으로 肥瘦에 대해서 整理해 보고 陰陽觀的, 臟腑論的, 體質, 疾病面에 대해 考察해 보고자 한다.

II. 本論

1. 肥瘦의 體型

《黃帝內經》에 肥人和 瘦人의 形態에 관하여 論한 곳이 많지는 않으나, 《靈樞·逆順肥瘦》篇에서 黃帝와 岐伯의 對話에 言及이 되고 있다.

<原文>

黃帝曰 願聞人之白黑肥瘦小長(1) 各有數乎 ?

岐伯曰 年質壯大 血氣充盈(2) 膚革(3)堅固 因加以邪 刺此者 深而留之 此肥人也.(4) 廣肩腋 項肉薄(5) 厚皮而黑色 臨臨然(6) 其血黑而(7)濁 其氣澁以遲(8) 其爲人也(9) 貪於取與(10) 刺此者 深而留之 多益其數也.

黃帝曰 刺瘦人奈何 ?

岐伯曰 瘦人者 皮膚色少(11) 肉廉廉然 薄 輕言 其血清氣滑(12) 易脫於氣 易損於血 刺此者 淺而疾之.

<精校>⁵⁾

(1) 小長 : '小'는 옹당 甲乙 및 太素에 의거 '少'로 고쳐야 한다.

(2) 盈 : 甲乙에는 '盛'으로 되어 있다.

(3) 膚革 : 甲乙에는 皮膚로 되어 있다.

(4) 此肥人也 : 太素에는 없다. 살피건대 '此肥人也' 四字는 衍文인 듯하다. 楊注에는 이 四字가 더 있는데, 아마 傳抄할 때 楊注가 經文에 誤入된 듯하다.

(5) 薄 : 針灸大成 券一 引文에는 없다.

(6) 然 : 甲乙에는 '然' 밑에 '者'字가 더 있다.

(7) 以濁 : 太素에는 '以'가 '而'로 되어 있다.

(8) 以遲 : 太素에는 없다.

(9) 爲人也 : 甲乙에는 없다.

(10) 與 : 甲乙에는 '予'로 되어 있다.

(11) 少 : 針灸大成 引文에는 '白'으로 되어 있다.

(12) 其血清氣滑 : 甲乙에는 '氣'위에 '其'字가 더 있다. 針灸大成 券一 引文에는 '清氣'가 '氣清'으로 되어 있고 아래의 '滑'字가 없다.

1) 許浚, 東醫寶監, 南山堂 1991, p.72

“天形出乎乾 有太易太初太始太素 夫太易者未見氣也 太初者氣之始也 太始者形之始也 太素者質之始也 形已具而病者 瘵瘵者 病 病由是萌生焉 人生從乎太易 病從乎太素”

2) 上揭書, p.75 “天地雖大 能役有形 不能役無形”

3)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40

4) 表天根, 黃帝內經에 대한 書誌學의 研究, 慶熙大學教 博士學位論文 1982, p.1

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出版部 1985年, p.190

<註釋>

張志聰⁶⁾은 '項肉薄 厚皮而黑色'에 대해서 項은 太陽이 主하는 곳인데 項의 肉이 薄하고 皮膚가 두텁고 色이 검으면 이것은 太陽의 水氣가 盛한 것이다. 口는 脾土의 外候인데 臨臨然하다는 것은 土氣가 厚大함을 말하는 것이다. 黑은 水의 色인데 血이 黑하고 濁하다는 것은 水가 重濁하다는 뜻이다. 氣가 滯하고 遲하다는 것은 肌肉이 두터워 氣道가 滯한 것이다. 大者 太過하면 瀉하고 不足하면 取하는 것인데, 取與에 貪한다는 것은 中道를 잃은 것이다.

<語釋>

黃帝가 岐伯에게 針法에 있어서 患者의 黑白肥瘦少長에 따라서 刺針의 深度와 回數의 標準에 대해서 물으니, 岐伯이 答하길 年質壯大한 사람은 血氣가 充盈하고 皮膚가 堅固하니 外邪가 入할 때 刺針은 깊이 하고 留針을 시킨다. 肥人은 어깨와 겨드랑이가 넓고 項部의 肉이 薄하고 皮膚는 두텁고 色은 검다. 口와 口술이 크고 血은 검고 混濁하며 氣는 滯하고 遲하다. 性品은 取與를 貪한다. 그러니 針刺는 深刺하고 留針시키며 刺針回數를 늘려야 한다.

또 黃帝가 瘦人에 대하여 물으니, 岐伯이 答하길 瘦人은 皮膚가 薄하고 顏色이 淡하며 肌肉은 마르고 口와 口술은 薄하고 言語聲音은 輕弱하며 血은 淸稀하고 氣는 滑利하니, 氣는 홀어지기 쉽고 血은 損耗되기 쉽다. 따라서 刺針은 淺刺하고 빨리 出針한다.

「逆順肥瘦」篇에서 言及한 肥瘦를 表1)로 나타냈다.

2. 脂膏肉에 대한 考察

《靈樞·衛氣失常》篇에 있는 脂膏肉으로서 體型을 論한 部分을 考察해 보았다.

<原文>

黃帝曰 何以度知(1)其肥瘦

伯高曰 人有肥(2)有膏有肉

黃帝曰 別之奈何?

伯高曰 髓(3)肉堅 皮滿者 肥 髓肉不堅 皮緩者 膏 皮肉不相離者 肉

<精校>⁷⁾

(1) 知: 胡本 熊本 周本 明本 藏本에는 모두 之로 되어 있고, 甲乙에는 '知'字가 없다.

(2) 肥: 웅당 甲乙에 의거 脂로 고쳐야 後文과 合한다.

(3) 髓: 日刻本에는 '髓'으로 되어 있다. 下同. 甲乙에는 日刻本과 合한다.

<註釋>

馬蒔⁸⁾가 註하길 人에는 肥膏肉의 區別이 있으니, 肥는 壯盛하다는 뜻이고, 肉은

6) 陳夢雷, 欽定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 서울, 成輔社 1982, 卷五十九 靈樞 十三, p. 133

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出版部 1985年, p. 259

8) 陳夢雷, 欽定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 서울, 成輔社 1982,

內經을 中心으로 한 體型의 肥瘦에 關한 考察

무릎 뒷면 오금을 뜻하며, 膏는 油이니 肥의 脂膏를 가르킨다.

張志聰⁹⁾은 註하길 衛氣는 分肉을 溫하게 하고 皮膚를 充滿하게 하며 주리를 肥沃하게 한다. 주리는 肌肉의 무늬인데, 豚肉을 예를 들면, 豚의 精肉은 筋肉사이 에 무늬가 있으니 무늬사이의 白膜을 脂라 하고 肉이 밖으로 皮와 연결된 部位에 있는 肌肉을 肥라 한다. 故로 肉이 堅하고 皮가 滿한 者를 肥라 하니, 대개 肥가 皮의 內側에 있고 肉의 外側에 있기 때문에 肉은 堅하고 皮는 滿한 것이다. 膏는 즉 肥의 脂膏¹⁰⁾이니, 豚筋肉의 外側의 白肉과 內側의 赤肉사이 에 여러층으로 쌓여있는 脂膏를 膏라 한다. 肉의 內에서 肥와 膏가 間隔이 있으므로 肉은 堅하지 못하고 皮는 緩하게 된다. 皮와 肉이 서로 떨어지지 않는 것은 肉이 勝하여 皮와 連結이 되고, 肉內에 膏와 肉外에 肥가 적어 衛氣가 肉理에 盛하기 때문이다.

<原文>

黃帝曰 身之寒溫何如 ?

伯高曰 膏者 其肉淖而(1) 粗理者 身寒 細理者 身熱 脂者 其肉堅 細理者 熱(2) 粗理者 寒

<精校>¹¹⁾

(1) 而粗理者 : '而'는 아마 衍文이니, 뒤의 '細理者 熱 粗理者 寒'이 '粗理者 身寒 細理者 身熱'과 文이 바로 相應하므로 '而'字가 있으면 文意가 이어지지 않는다.

(2) 細理者熱 : 甲乙에는 '和'로 되어있다.

<註釋>

任谷庵이 註하길 衛氣는 分肉을 溫하게 하니, 膏는 肉이 堅하지 못하므로 肉이 柔潤하고 脂는 주리가 固密하기 때문에 肉이 堅하다. 주리가 성글면 衛氣가 外洩하므로 身이 冷해지며 주리가 細密하면 衛氣가 收藏하므로 身이 溫해진다.

<原文>

黃帝曰 其肥瘦大小奈何 ?

伯高曰 膏者 多氣而皮縱緩 故能從腹垂腴
肉者 身體容大
脂者 其身收小

<註釋>

馬蒞가 註하길 膏者는 반드시 氣가 多하여 皮가 自然히 늘어나 腹部의 肌肉이 늘어지게 된다. 이것을 肥라 한다. 이와 反하는 것을 瘦라 한다.

任谷庵이 註하길 肉者는 身體가 크니 이것은 衛氣가 盛해서 分肉에 가득한 것이다. 脂者는 身體가 작으니 衛氣가 深沈하여 分肉에 충분치 못하니, 脂膜이 서로 붙어 肌肉이 緊密하다.

券五十九 靈樞 十七, p. 16

9) 陳夢雷, 上揭書, p. 16

10) 脂膏은 비계기름이다.

1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出版部, 1985年, p. 259

<原文>

黃帝曰 三者之氣血多小何如 ?
伯高曰 膏者 多氣 多氣者 熱 熱者 耐寒
肉者 多血即充形(1) 充形(2)即平
脂者 其血清 氣滑少 故不能大 此別(3)於衆人者也

<精校>

(1) 肉者 多血即充形 : 張注本에는 '多血' 밑에 '多血' 二字가 겹쳐 있는데 이것이 앞의 '多血' 句와 句法이 일치한다. 甲乙에는 '多血者' 三字가 옳게 있어서 張注本과 合한다. 甲乙에는 '充形' 이 '形充' 으로 되어 있다.
(2) 形 : 甲乙에는 '形' 밑에 '者' 字가 더 있다.
(3) 別 : 統本 金陵本에는 모두 '安' 으로 되어 있다.

<註釋>

馬蒔가 註하길 膏者는 氣가 많고 氣가 많으면 身이 熱해져서 能히 寒을 참을 수 있다. 肉者는 多血하므로 形을 충분히 갖을 수 있어서 寒하지도 熱하지도 않다. 脂者는 血이 淸하고 氣가 滑少하여 身形이 크지 않으니 寒에 弱하다.

<原文>

黃帝曰 衆人奈何 ?
伯高曰 衆人皮肉脂膏 不相加也(1) 血與氣 不能相多 故其形不小
不大 各自稱其身(2) 命曰 衆人
黃帝曰 治之奈何
伯高曰 必先別其三(3)形 血之多少 氣之淸濁 而後調之 治無失常
經 是故 膏人(4)縱腹垂腴 肉人者 上下容大 脂人者 雖脂
不能大者(5)

<精校>

(1) 衆人皮肉脂膏 不相加也 : 甲乙에는 '人' 밑에 '之' 字가 더 있다. 統本 金陵本에는 모두 '能' 字가 없다.
(2) 身 : 統本 金陵本에는 모두 '形' 으로 되어 있다.
(3) 三 : 甲乙에는 '五' 로 되어 있다.
(4) 膏人 : 統本에는 '膏' 가 '高' 로 되어 있고, 甲乙에는 밑에 '者' 字가 더 있다.
(5) 不能大者 : 周本 張注本 日刻本에는 모두 '也' 로 되어 있다. 甲乙에는 '大' 밑에 '者' 字가 없다.

<註釋>

余伯榮이 註하길 不能相加는 血氣가 和平하면 皮肉脂膏가 서로 肥大해 지지 않으며, 血氣의 浮沈淺深이 각각 그 마땅한 바를 지키면 肥肉間에 많아지지 않는다.
張志聰이 註하길 사람의 血氣는 過不及이 없어야 한다. 三者는 肥大의 太過와 瘦小의 不及이 있으니, 마땅히 血의 多少와 氣의 淸濁을 살피서 多스리게 되면 衛氣가 常道를 지켜 和平之人이 되는 것이다. 大개 衛氣는 皮肉筋骨之間을 注하고 浮沈淺深에 각각 마땅함이 있으나 皮膚分肉之間에 獨盛하게 되면 縱腹垂腴 上下容大 하게 되고 或 筋骨에 深沈하게 되면 脂가 능히 크지 못하고 衛氣가 失常하게 된다.

內經을 中心으로 한 體型的 肥瘦에 對한 考察

<考 察>

脂字는 ‘月’과 ‘旨’로 된 형성문자로 肉體를 뜻하는 ‘月’과 머문다는 뜻을 나타내는 ‘旨’로 구성되어 비계란 뜻과 津이란 뜻이 있다.¹²⁾ 또 人體의 皮下 및 筋肉組織중에 점성이 있는 油脂가 고체로 된 것이라고 한다.¹³⁾ 張志聰은 그의 註에서 筋肉사이에 무늬가 길처럼 나 있는데, 그 무늬 사이의 白膜을 脂라고 하고, 그 位置에 있어서 脂는 皮의 內側에 있고 肉의 外側에 있기 때문에 有脂人은 肉이 堅하고 皮가 滿하다고 하였다. 이상으로 볼 때 脂는 皮와 肉사이에 있는 점성이 있는 유지라고 볼 수 있다.

膏字는 ‘月’과 ‘高’로 된 形成文字로 肉體를 뜻하는 ‘月’과 회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한 ‘高’로 이루어져 흰고기 기름을 뜻한다.¹⁴⁾ 張志聰은 筋肉外層과 內層사이에 여러 층으로 쌓여 있는 脂膏를 膏라고 보고, 肉의 內에 肥(脂)와 膏의 間격이 생기므로 肉은 堅하지 못하고 皮는 緩하다고 보았다. 이상으로 볼 때 膏는 肉의 사이에 있으며 기름 卽 脂肪으로 볼 수 있다.

肉字는 象形文字로 神에게 바치는 動物의 고기조각을 象徵하며 ‘육’이란 음은 부드럽다는 ‘柔’字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¹⁵⁾ 張志聰은 衛氣가 肉理에 盛하면 肉이 바로 皮와 連結이 되어 肉내에는 膏가 없고 外에는 脂가 없다고 하였다. 이상으로 볼 때 脂는 皮와 가까히 있고 그 아래에 肉과 膏가 서로 섞여 있어서 衛氣의 浮沈에 따라 有脂 有膏 有肉型의 區分이 생긴다고 볼 수 있다.

膂은 肌肉의 突起處로 上肢에 있어서는 膂가 되고 下肢에 있어서는 膂이 되니¹⁶⁾ 이 部位가 堅實하고 皮膚가 豐滿하며 肉이 彈力性이 있고 身小한 사람은 有脂의 類型에 屬한다. 局部가 반대로 堅實치 못하고 皮膚가 弛緩되어 腹部의 肌肉이 아래로 늘어나면, 이것은 膏의 類型에 屬한다. 皮肉이 連結되어 堅實하고 上下가 서로 應하여 體格이 크면 이것은 有肉의 類型에 屬한다. 일반인 즉 衆人은 皮肉脂膏가 비교적 均等히 있고 體格의 大小도 적당하다.

體型이 같지 않기 때문에 生理에도 차이가 있게 된다. 膏人은 多氣하고 身體가 熱하여 寒을 잘 참고, 肉人은 多血하기에 身體가 充實하고 체질이 和平하여 不熱不寒하다. 脂(肥)人은 血이 淸하고 氣가 滑少하다. 馬蒔의 註에 따르면 有膏者는 氣가 多하여 皮가 늘어나 腹部의 肌肉이 늘어지니 이를 肥라고 하고, 이와 반대를 瘦라 하였다. 有肉者는 身體가 크므로 大가 되며, 有脂者는 身體가 적으므로 小가 된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體型에 따른 生理病理적 變化를 추구하였다고 사료된다.

有脂 有膏 有肉의 類型은 表2) 와 같다.

3. 肥瘦의 陰陽論의 考察

1) 陰陽論

陰陽은 太極이라는 統一體가 太易 太初 太始 太素의 四段階를 거쳐서 太極으로 發展하고, 그리하여 陰陽이라는 두 가지 氣運으로 갈라지게 되니,¹⁷⁾ 陰陽이라는 것은 太

12) 民衆書館編輯局編 포갯漢字辭典 民衆書林 1985 p995

13) 中國醫學大辭典, 商務印書館 十五版, 中華民國 七十三年, p. 2306

14) 民衆書館編輯局編, 포갯漢字辭典, 民衆書林, 1985, p. 1003

15) 上揭書, p. 988

16) 中國醫學大辭典, 商務印書館 十五版, 中華民國 七十三年, p. 3105

17) 韓東錫, 宇宙變化의 原理, 杏林出版社 六版 1982, p. 31

極의 兩面性이라 할 수 있다. 陰陽이란 글자를 살펴보면 '陰'은 언덕을 나타내는 '阜'와 음을 나타냄과 동시에 어둡다는 뜻을 가진 '邑'으로 이루어 졌으니 해가 비치지 않는 그늘을 의미하며,¹⁸⁾ '陽'도 또한 언덕을 나타내는 '阜'와 '日'(해뜰 단)의 변형인 '易'으로 이루어 졌으니 언덕의 별이 뜨는 쪽을 의미한다.¹⁹⁾ 이는 즉 太陽의 움직임에 따라 陰地가 陽地로 變하기도 하고 陽地가 陰地로 變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며, 陰은 空間的 時間的으로 陽을 前提한 것이며 陽도 또한 空間的 時間的으로 陰을 前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陰陽의 思考로 事物을 觀察한다는 것은 陰陽 兩面的面에서 同時에 觀察되고 表現되어야 하며 陰을 무시하고 陽만 表現한다든가 陽만 무시하고 陰만 表現하면 약속체계에 어긋나게 된다. 그러므로 주어진 대상에서 陰陽을 구분하였더라도 陽이라고 한 부분만을 대상으로 삼는다면 여기에서 또 다시 陰과 陽을 구분하여야 한다. 陰中有陽이니 陽中有陰이란 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陰이 存在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陽이란 없고 陽이 存在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陰도 없다.²⁰⁾

肥瘦를 陰陽으로 관찰하면 瘦人은 血清氣滑하고 말소리가 가벼우니 陽으로 볼 수 있으며, 肥人은 血黑而濁 氣澁以遲하므로 陰으로 관찰되어 질 수 있다. 다시 瘦人만을 두고 관찰하여 보면 氣血이 弱하지만 寒熱이 있어서 陰陽으로 관찰될 수 있다. 또 肥人만을 두고 관찰을 하면 氣血이 盛하지만 寒熱이 있어서 陰陽으로 관찰될 수 있다.

2) 陰陽의 虛盛

《黃帝內經·素問·調經論》에 보면 陰陽의 虛盛에 대해 언급한 것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陽이 虛하면 밖이 차고 陰이 虛하면 안이 熱하며 陽이 盛하면 밖이 熱하고 陰이 盛하면 안이 차다. 陽이 虛하여 밖이 찬 것은 陽이 上焦에서 氣를 받아 皮膚와 分肉의 사이를 溫하게 하는데, 寒氣가 밖에 머물러 있고 上焦가 通하지 않으면 寒氣가 들어갈 곳이 없으므로 寒慄의 작용을 일으킨다. 陰이 虛하여 안이 熱한 것은 勞役과 疲倦으로 因하여 形氣가 衰少하고 穀氣가 盛하지 않으며 上焦가 운행하지 않고 下腕이 通하지 않으면 胃氣가 熱하고 熱氣가 가슴을 薰蒸하는 고로 속이 熱하다. 陽이 盛하여 밖이 熱한 것은 上焦가 通利하지 않으면 皮膚가 緻密하여 주리가 閉塞하고 支府가 통하지 않으며 衛氣가 發泄되지 않는 고로 밖이 熱한 것이다. 陰이 盛하여 안이 찬 것은, 厥氣가 上逆하여 寒氣가 가슴에 쌓이고 瀉泄하지 못하면 溫氣가 가고 寒氣가 홀로 留하여 血이 凝結하고 血이 凝結하면 脈이 通하지 않아서 盛大해 지는 故로 안이 차다.²¹⁾

이를 肥瘦에 代入해 보면 瘦人은 氣가 脫하기 쉬우므로 陽虛하여 밖이 차고 血이 損耗되기 쉬우므로 陰虛하여 안이 熱할 수 있다. 肥人은 血黑而濁 氣澁以遲하므로

18) 民衆書館編輯局編, 포켓漢字辭典, 民衆書林 1985, p.1231

19) 上揭書, p.1235

20) 金仁洛, 洪元植, 東洋醫學의 生死論 研究, 慶熙韓醫大論文集 vol. 12 1989, p. 59

21) 黃帝內經 素問 調經論篇 第六十三

“帝曰 經言陽虛即外寒 陰虛即內熱 陽盛即外熱 陰盛即內寒 余已聞之矣 不知其所以然也. 岐伯曰 陽受氣於上焦 以溫皮膚分肉之間 今寒氣在外 即上焦不通 即寒氣獨留於外 故寒慄.

帝曰 陰虛生內熱 奈何? 岐伯曰 有所勞倦 形氣衰少 穀氣不盛 胃氣熱 熱氣熏胸中 故內熱.

帝曰 陽盛生外熱 奈何? 岐伯曰 上焦不通利 即皮膚緻密 主閉塞 支府不通 衛氣不得泄越 故外熱.

帝曰 陰盛生內寒 奈何? 岐伯曰 厥氣上逆 寒氣積於胸中而不瀉不瀉即溫氣去 寒獨留 即血凝泣 凝泣即脈不通 其脈盛大而遲 故中寒”

陰陽이 俱盛하기 쉬우므로 밖은 열하고 안은 차기 쉽다.

白色은 虛證 寒證과 관련이 되고, 黑色은 寒證 痛證 勞傷 血瘀와 관련이 있으니,²²⁾ 이를 肥瘦에 代入해 보면 瘦白人은 寒證으로 보고 瘦黑人은 勞傷으로 보며, 肥白人은 虛證으로 氣虛로 보고 肥黑人은 寒證 血瘀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 때의 色은 胃氣가 없어서 潤氣가 없는 病色으로 보아야 한다.

4. 肥瘦의 臟腑論의 考察

人體의 構造는 內的으로 五臟으로 構成되며, 이 五臟에 의해서 生理的 機能이 일어난다. 五臟 즉 肝心脾肺腎은 각각 다른 바 職分이 있으며 이 職分을 수행하면서 臟器相互間에 有機的 關係를 가진다. 五臟은 觀察되어지는 觀點에 따라 여러 面으로 表現될 수 있다.

五臟을 上下²³⁾의 觀點에서 볼 때는 肺心은 陽으로 觀察되어 지며, 肝腎은 陰으로 觀察되어 질 수 있다. 肺心은 陽이기에 動的이며 肝腎은 陰이기에 靜의이다. 人體가 偏陽하게 되면 肺心이 旺盛해지고 性品이 動的이고 進取的이며 發散的이다. 그러나 肝腎은 陰인 까닭에 반대로 弱해져서 陰의 屬性인 血, 津液이 枯渴되기 쉽고 體型이 瘦瘠해지기 쉽다. 人體가 偏陰해 지면 肝腎이 旺盛해지고 性品은 靜의이고 保守的이며 收縮的이다. 그래서 反대로 心肺가 弱해져서 陽의 屬性인 氣가 不足하니 血, 津液이 쌓이기만 하고 氣가 약하여 循環이 안된다. 그래서 氣는 더 不足하기 쉽고 人體는 肥滿해 지기 쉽다.

五臟을 內外²⁴⁾의 觀點에서 볼 때 心肝은 內로 觀察되어 지고 肺腎은 外로 觀察되어 질 수 있다. 心肝은 血을 각각 行血藏血하면서 人體 內部 곳곳에 血行을 좋게 한다. 血은 본시 水가 火色 즉 赤色을 띠는 것으로 熱을 품고 있으며 陽으로 觀察되어 질 수 있다. 그러나 偏陽해지면 熱이 많아지고 血이 줄어들어 瘦瘠해 진다. 肝과 心은 火를 띄게 되어 “肝陽上亢”, “心陽偏亢” 등의 病變이 일어나게 된다. 肺는 宣發과 肅降作用으로 水道를 通調하고 腎은 津液을 膀胱으로 보내거나 體內에 再吸收 시켜서 津液을 主한다. 그러나 偏陰해지면 人體의 水分이 排泄되지 않아서 痰飲 등 液體가 體內에 貯溜하게 되고 몸이 冷해지며 肥滿하게 된다.

5. 肥瘦의 體質論의 考察

體質이란 것은 人體의 生長發育 및 老衰過程 중에 形成된 代謝機能, 構造上의 特殊性이다²⁵⁾. 이러한 特殊性은 人體가 內部와 外部의 環境變化의 刺戟에 대해서 對應할 때 나타난다. 內部 外部의 刺戟에 대하여 잘 適應하면 生理的인 反應으로 表現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內部 外部의 刺戟 要因이 強해서 限界調節能力을 넘게 되면 病理的인 傾向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體質의 特殊性은 形體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²⁶⁾. 形體는 크게 두 가지 面으로 觀察되어 질 수 있다. 하나는 人體를 構成하는 根幹이 되는 臟腑, 經絡, 四肢,

22) 洪元植, 韓醫學辭典, 成輔社 1983, p. 248

23) 上下는 界位的 觀點으로 觀察되어지는 方法論이다.

24) 內는 內的인 生命現象을 말하며, 外는 外界와의 連繫關係로 觀察되는 方法論이다.

25) 朴贊國 編譯, 病因病機學, 傳統醫學研究所 1992, p. 423

26) 許浚, 東醫寶鑑, 南山堂 1991, p. 72

“能役有形 不能役無形(구실을 하는데는 形이 있어야 하며 形이 없으면 구실을 못한다.)”

五官, 五體이다. 이는 실제 人體를 구성하는 組織의 實體 및 機能으로 臟象學的 觀點에서 臟腑의 概念으로 귀속이 될 수 있다. 또 하나는 生命現象을 維持 시켜주는 精, 氣, 血, 津, 液 등으로 氣血의 概念에 包含 시킬 수 있다²⁷⁾. 그래서 體型을 臟腑와 氣血의 偏差에 의해서 觀察할 수 있다.

《靈樞》의 「本臧」篇에 臟에는 小大, 高下, 堅脆, 端正, 偏傾이 있고, 腑에는 小大, 長短, 厚薄, 結直, 緩急이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臟腑의 차이에 따라 內部 外部 環境變化의 刺戟에 대하여 대응하는데 차이가 있게 된다. 臟은 小, 堅, 端正하면 균형이 잘 맞아서 건강하며, 大, 高, 下, 脆, 偏傾하면 균형이 잘 안 맞아 질병이 발생하기 쉽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瘦人은 陽으로 보아 心肺²⁸⁾ 또는 心肝²⁹⁾에 小大, 高下, 堅脆, 端正, 偏傾의 편차가 나타나기 쉽다. 그래서 생리적으로는 陽이 盛하니 行動이 민첩하고, 활동적이며, 진취적이다. 그러나 虛勞, 思慮過多, 房勞過多등으로 陽을 과다하게 향진시키면 오히려 陰을 손상시켜서 “陰虛火動”이나 “痰熱”의 病理的 現象을 야기시킨다. 肥人은 陰으로 보아서 肝腎 또는 肺腎에 小大, 高下, 堅脆, 端正, 偏傾의 편차가 나타나기 쉽다. 그래서 생리적으로는 陰이 盛하니 行動이 느리고, 靜的이며, 內性的이다. 그러나 陽이 적으므로 臟器가 약해지기 쉬워서 전체적으로 몸이 허약하며 水分代謝가 원활치 못하여 “痰濕”, “痰飲”, “瘀血”등의 질병이 생기기 쉽다.

또 氣血의 차이에 따라 體質에 차이가 있게 된다. 《靈樞 陰陽二十五人》篇에 보면 形體가 肥滿하면서 살결에 潤氣가 있으면 氣와 血이 有餘하며(肥而澤者 血氣有餘), 形體가 肥滿하면서 살결에 潤氣가 없으면 氣는 有餘하나 血이 不足한 것이며(肥而不澤者 氣有餘 血不足), 形體가 마르고 살결에 潤氣가 없으면 氣와 血이 모두 不足하다고(瘦而無澤者 氣血俱不足) 되어 있다. 또 《靈樞》의 「衛氣失常」篇에 보면 衛氣의 浮沈乘降의 偏差에 의해서 脂, 膏, 肉의 구분이 생긴다. 脂人은 氣가 滑하고 血이 淸하여 쉽게 손상을 받기 쉬워서 氣血이 모두 弱하고, 膏人은 氣가 많아 신체에 열이 많고, 肉人은 血이 많아서 신체가 충실하다.

또 인체 전면적인 體質의 분류가 있다. 《內經》에는 陰陽二十五人論³⁰⁾과 五態人論³¹⁾이 있고, 후에 張景岳의 陰陽人論과 東武 李濟馬의 四象理論을 볼 수 있다. 이 중 五態人論은 體型과 機能과 感情을 결부시킨 것으로 체질이 純陰인 것을 太陰이라 하고, 多陰少陽인 체질을 少陰이라 하며, 純陽인 체질을 太陽이라 하고 多陽少陰인 체질을 少陽이라고 한다³²⁾. 瘦人은 陽이 많으므로 太陽, 少陽과 聯關性이 있다. 肥人은 陰이 많으므로 太陰, 少陰과 聯關性이 있다. 이것은 四象醫學에 있어서도 太陽人 少陽人은 瘦人에 가깝고, 少陰人 太陰人은 肥人과 가깝다고 볼 수 있다.

6. 肥瘦의 疾病의 考察

《素問 奇病論》에는 기름지고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비만해지고, 비만해지면 內에 熱이 생기는데 甘味는 中滿하는 작용이 있어서 氣가 위로 넘쳐서 消渴病으로 轉移된다³³⁾.

27) 朴贊國 編譯, 臟象學, 成輔社 1992, p. 287

28) 上下 各 界位的 觀點에서 觀察하는 方法論

29) 內外觀으로 관찰함

30) 黃帝內經·靈樞, 六十四篇.

31) 黃帝內經·素問·通天篇, 七十一.

32) 尹吉榮, 四象體質醫學論, 明寶出版社 1986, p. 22

33) 內經 素問 奇病論, “此人必數食甘味而多肥也. 肥者 令人內

《素問·通評虛實論》에는 肥貴人은 高粱珍味로 인하여 病에 걸리니, 隔塞閉絶하고 上下가 不通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근심하여 病에 걸린 것이다³⁴⁾.

《素問·風論》에는 風氣가 陽明과 더불어 胃로 들어가 脈을 따라서 眼의 內眥까지 이른다. 그래서 肥滿한 사람은 風氣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므로 中이 熱하고 黃疸이 오기 쉽다. 다른 사람은 風氣가 밖으로 새어나가 출고, 中이 차가워서 눈물이 잘난다.³⁵⁾

위의 세가지 例에서 보면 모두 肥滿하면 血이 濁해지고 그래서 氣의 循環이 안되어 鬱熱이 생기고 隔塞閉絶하기 쉽다.

金元四大家의 한사람인 朱丹溪는 사람에 따라 形色이 같지 않고 臟腑도 같지 않으니, 같은 外證이라도 治法은 마땅히 다르다고 하였다³⁶⁾. 그는 肥人은 氣가 虛하여 寒을 낳고 寒이 濕을 낳으며 濕이 痰을 낳으니 寒濕이 많고, 瘦人은 血이 虛하여 熱을 낳고 熱이 火를 낳으며 火가 燥를 낳는 고로 燥熱이 많다고 보아서 '肥人濕多'하고 '瘦人火多'라고 보고 治病에 있어서 個個人의 特性을 중시하였다. 그의 中風의 治療 例중에 瘦人은 中風이 와도 陰虛火動하기 쉬우니 四物湯加 牛膝 竹瀝 黃芩 黃柏을 쓰고, 肥人이 中風이 오면 肥人은 그氣가 外는 盛하고 內가 不足한 뜻이다. 肺는 氣가 出入하는 道이니 肥人은 氣가 急하므로 痰涎이 壅塞하게 되어서 그 病을 다스림에 理氣를 먼저 하여야 한다고 했다. 즉 氣가 降하면 痰이 自然히 除去될 것으로 본 것이다. 그래서 附子와 烏頭로 行經하고 去痰藥과 二陳湯 四物湯을 服用시킨다³⁷⁾. 그의 陽有餘 陰不足³⁸⁾은 瘦人에 해당 되고 陰有餘 陽不足³⁹⁾은 肥人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다.⁴⁰⁾

III. 結 論

《黃帝內經》을 中心으로 體型의 肥瘦에 대하여 考察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肥人은 어깨가 넓고 項部의 肉이 薄하고 皮膚는 두텁고 色은 검으며 입과 口술이 크고 血은 검고 混濁하며 氣는 澁하고 遲하다. 性品은 取與를 貪한다.

瘦人은 皮膚가 薄하고 顏色이 淡하며, 肌肉은 마르고 입과 口술은 薄하며, 言語聲音은 輕弱하고 血은 淸稀하고 氣는 滑利하므로 氣는 흩어지기 쉽고 血은 損耗되기 쉽다.

2. 有脂(肥) 有膏 有肉의 類型은 表 2)와 같다.

3. 肥瘦를 陰陽으로 보면 肥는 陰이 되고 瘦는 陽이 되며 肥瘦 各各에 대해서도 陰陽으로 관찰되어 질 수 있다. 瘦人은 氣가 脫하기 쉬우므로 陽虛하여 밖이 차고 血이

熱 甘者令人中滿 故其氣上溢 轉爲消渴”

34) 素問·通評虛實論, “肥貴人 卽 高粱之疾也 隔塞閉切 上下不通 卽 暴憂之病也”

35) 素問·風論, “風氣與陽明入胃 循脈而上至目內眥 其人肥 卽風氣 不得外說 卽熱中而目黃 人瘦 卽外泄而寒 卽 爲寒中而泣出”

36) 李聰甫, 金元四大醫家學術思想研究, 湖南省中醫藥研究所, 成輔社 1985, p. 234

37) 朱震亨, 丹溪治法心要, 山東科學技術出版社 1985, p. 1

38) 이 때의 陽은 邪火를 뜻하고 陰은 眞陰을 뜻한다.

39) 이 때의 陰은 陰寒之氣를 뜻하고 陽은 眞陽을 뜻한다.

(李聰甫, 金元四大醫家學術思想研究, 湖南省中醫藥研究所, 成輔社 1985, p. 228)

40) 李聰甫, 金元四大醫家學術思想研究, 湖南省中醫藥研究所, 成輔社 1985, p. 234

損傷받기 쉬우므로 陰虛하여 안이 熱하기 쉽다. 肥人은 血黑而濁 氣滯以遲 하므로 陰陽이 俱盛하기 쉬워서 外는 熱하고 內는 차기 쉽다.

4. 肥瘦를 臟腑論的으로 觀察하였을 때, 上下의 觀點으로는 瘦는 陽으로 心肺에 속하고 肥는 陰으로 肝腎에 屬한다고 볼 수 있다. 內外의 觀點으로 볼 때 瘦는 內로 心肺이 속하고 肥는 外로 肺腎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5. 肥瘦를 體質論的으로 觀察하였을 때 局所的으로는 脂, 膏, 肉으로 分類할 수 있고, 人體 全面的 分類로 볼 때 五態人論과 四象醫學에 있어서 太陽人, 少陽人은 瘦人의 範疇에 聯關이 있으며, 太陰人, 少陰人은 肥人의 範疇에 聯關이 있다고 思慮된다.

(表 1) 肥瘦에 나타난 身體 部位別 特徵의 比較

	瘦	肥
皮膚	薄	革堅固
色	少	黑色
肉	廉廉然	廣肩腋 項肉薄 厚皮而黑色
唇	薄	臨臨然
言	輕	
血	清(易損)	黑而沈
氣	滑(易脫)	滯以遲
針法	淺而疾之	深而留之
爲人		食于取與

(表 2) 肥, 膏, 肉에 對한 比較

	有肥(脂)	有膏	有肉
鑑別法	肉堅 皮滿	肉不堅 皮緩	皮肉不相離
身之寒溫	肉堅 細理者 熱 粗理者 寒	肉 細理者 熱 粗理者 寒	

內經을 中心으로 한 體型的 肥瘦에 對한 考察

肥瘦大小	其身收小	多氣而皮縱緩 能縱腹垂	身體容大 上下容大
氣血多小	血清氣滑 故不能大	多氣 多氣者熱 熱者耐寒	多血 多血即充形 充形即平

(표 3) 肥瘦의 陰陽虛盛 및 病證에 대한 比較

	肥 人	瘦 人
陰陽虛盛	陽盛 --- 外熱 陰盛 --- 內寒	陽虛 --- 外寒 陰虛 --- 內熱
病 證	目黃, 消渴, 高粱之疾 痰濕, 痰熱, 瘀血	寒中而泣出 心陽偏亢 肝陽上亢
朱丹溪	氣虛生寒 寒生濕 濕生痰 寒濕多 肥人濕多	血虛生熱 熱生火 燥熱多 瘦人火多
朱丹溪 中風治療	附子와 烏頭로 行經하고 去痰藥, 二陳湯과 四物湯을 服用	四物湯 加 牛膝 竹瀝 黃芩 黃柏

「參考文獻」

- 1). 金仁洛·洪元植, 東洋醫學의 生死論 研究, 慶熙韓醫大論文集 vol 12. 1989.
- 2). 民衆書館編輯局編, 正氣漢字辭典, 民衆書林 1985.
- 3). 朴贊國 編譯, 病因病機學, 傳統醫學研究所 1992.
- 4). 朴贊國 編譯, 臟象學 成輔社 1992.
- 5). 尹吉榮, 四象體質醫學論, 明寶出版社 1986.
- 6). 李文鎬外, 內科學, 박애출판사 1978 三版.
- 7).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杏林書院 1970.
- 8). 李聰甫·劉炳凡 編著, 金元四大醫家學術思想研究, 湖南省中醫藥研究所, 成輔社 1985.
- 9). 張介賓, 景岳全書, 國風出版社.
- 10). 朱震亨, 丹溪治法心要, 山東科學技術出版社 1985.
- 11). 中國醫學大辭典, 商務印書館 十五版, 中華民國 七十三年.
- 12). 陳夢雷, 欽定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 서울 成輔社 1982.
- 13). 表天根, 黃帝內經에 대한 書誌學的 研究, 慶熙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82.
- 14). 韓東錫, 宇宙變化的 原理, 杏林出版社 1982 六版.

內經을 中心으로 한 體型的 肥瘦에 對한 考察

- 15). 許浚, 東醫寶監, 南山堂 1991.
- 16).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 1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出版部 1985年.
- 1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出版部 1985年.
- 19). 洪元植, 韓醫學辭典, 成輔社 1983.

KYOBO
교보문고